****

**선교 활동 보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파올라 토그나렐레[Tog-na-rē-le]에게 어머니 지구와의 연결은 신성합니다. 파나마의 파나마 시티에 기반한 Women's Meeting Space에서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나누는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Women's Meeting Space은 파나마 시티 출신과 가난한 지역에서 온 파나마 여성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여성들, 주로 실업 상태인 여성 가장들을 돕습니다. 이들과 가족이 집에서 직접 식량을 재배하여, 높은 실업률과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파트너 단체는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장로교 위원회(SDOP)'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 지원금은 장로교인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모은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SDOP는 저소득 지역 사회들이 영구적인 가난과 억압과 불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헌금의 목적은 전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 아니라,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과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장로교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웃을 향한 도움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파나마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곳에 여성 모임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라고 SDOP의 선교 스페셜리스트인 테레사 바이다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2007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010년 벨리즈에서 그리고 2018년 파나마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조직은 대부분이 여성 단체였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대부분 여성들이 책임지기 때문이죠."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돕고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적인 묘목장을 만들고, 공동체 농작물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직접 기른 농작물로 가족들의 식량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나머지 농작물을 팔아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곳의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이 포로젝트로 인해 삶이 바뀌고 있는 파올라와 많은 여성들은 미국장로교 교인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여성들과 Women's Meeting Space의 매니저들과 미국장로교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내어도 함께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섬기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과 손을 잡을 때, 저희와 함께해주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어려운 공동체에 희망과 생명을 가져오는 사역들을 돕게 하소서.* **아멘***.*